# '96 양돈 10대 뉴스

## 1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키로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방침

신한국당은 지난 10월 23일 고위 당직자 회의를 열고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전체 축산농가까지 전면 확대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내년 7월부터 소를 제외한 축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상득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 실장, 황병태 국회 재경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 장관을 만나 당의 입장을 전달했고 한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전면 적용될 경우 축산농민들은 연간 2,200여 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국제 경쟁에서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번 신한국당의 결정으로 축산물의 전면 수입개방과 지난 2년간의 국제사료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축산농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한·중 양국 양돈협회 자매결연 체결

한·중 양국의 양돈협회가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양돈산업과 사료·동물약품 등 양돈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 전동용)는 지난 11월 1일 양돈회관 회의실에서 중국 양돈협회(회장 : 구진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돈산업분야의 교류를 촉진키로 하였다.

(사) 대한양돈협회는 중국 양돈협회 구진원 회장, 중국 농업부 수약감찰소 박영철 부총리, 중국 농업부 수약 감찰소 북경연구소 왕태건 소장을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초정하여 한·중 양돈협회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국내 양돈산업 현장시찰과 양돈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중국 양돈협회가 다른 나라 양돈협회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며, 구진원 중국 양돈협회장은 "양국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 양돈산업이 중국에 대한 기술투자와 관련분야의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 양돈협회는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돈에 관한 경영관리 및 기술의 정보교류, 양국 양돈협회간의 합작 사업추진 등 양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하였다.

## 3 국내 양돈용 배합사료값 큰 폭으로 인상

국내 배합사료값이 지난 4월 중순과 9월초 두번에 걸쳐 인상되면서 올해 양돈용 배합사료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국내 대형사료업체와 축협 중앙회는 지난 4월 15일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및 적자폭 확대 등의 이유로 배합사료값을 평균 11.6% 올렸으며 9월초 부터는 배합사료 값을 평균 5.8% 인상했다.

축협의 경우 양돈용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4월 중순에 12.49%, 9월 초에 7.75% 인상되어 올해 양돈사료 총 인상률은 21.2%에 달한다.

한편 농가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사료 소비량 가중 평균치로 계산한 96년도 축협 양돈용 사료 가중 평균 인상은 지난 4월 13.15%, 9월 8.26% 인상으로 '95년말 대비 22.50%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도 사료값이 두차례나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2년간 약 35%의 사료값이 인상되어 양돈농가들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 가축분뇨처리 단속 기준 대폭 강화

지난 7월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분뇨처리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축산폐수 처리시설 허가대상이 축사면적기준 1,400㎡ 이상에서 1,000㎡ 이상, 신고대상 농가는 250㎡~ 1,400㎡ 미만, 간이 정화조 설치대상 농가는 70㎡~ 250㎡ 미만으로 강화됐다. 또한 방류 수질기준은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강화되어 시행됐다.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한 신고축사 규모의 농가는 발기별로 1회씩, 허가축사규모의 경우 분기별로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허가 농가의 경우는 목장주나 피고용인 가운데서 정화조를 관리하는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술관리인은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으며, 관계 전문가들은 완벽한 정화조 시설완비와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 5 돼지고기 중금속 해독, 연구결과로 입증

### -돼지고기 중금속 해독효과 속설을 과학적으로 입증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속의 중금속을 해독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입증됐다.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의 이남형박사팀은「돼지고기 섭취가 몸속의 중금속 대사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돼지고기의 섭취시 도시공해 가운데 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카드뮴을 해독하는데 해독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남형 박사외 4인의 연구팀은 도시 환경 공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뮴(cd)을 흰 쥐에게 먹인 뒤 흰쥐의 먹이에 들어있는 카세인(우유단백질)을 꺼내고 대신 삶은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사료를 50일간 준결과 중금속을 없애는 성분인 멜탈로티오나인의 함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흰쥐 몸속의 카드뮴 균형시험에서는 체내 카드뮴의 축적량은 크게 낮은 반면 분뇨의 양이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드뮴 해독의 효과가 있는 셀레늄과 돼지고기를 함께 투여했을 때 조직이 거의 손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즈음 돼지고기 섭취가 생체로부터 중금속 배출에 효과가 있다는 옛부터 내려오던 속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 되어 의의가 크다.

## 6 돼지고기 삼겹살, 콜레스테롤 함량 적어

### -국내 유통식품 251종 콜레스테롤 함량조사 결과

식품안전본부 식품안전평가실이 지난 94년부터 작년말까지 2년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251종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삼겹살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닭고기, 쇠고기(등심)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월 8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100g 기준으로 돼지고기 삼겹살 55.3mg, 한우등심 64.2mg, 닭고기 72.6mg으로 나타났다.

한편 쇠머리골, 허파, 간 등 동물내장이나 마른 오징어 등 갑각류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식품으로는 소머리골(2,247.5 mg), 계란노른자(1,280.7), 건조꼴뚜기(1,201), 마른 오징어다리(1,106) 등으로 나타났다.

## 7 돼지 콜레라, 오제스키병 박멸 대책 확정

### -돼지 콜레라 2001년, 오제스키 2002년까지 박멸

정부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돼지 콜레라, 돼지 오제스키병을 비롯, 뉴캣슬병, 추백리, 가금티푸스, 우결핵, 부루셀라병 등의 「주요 가축전염병 박멸대책」을 지난 6월 18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2년까지 2천5백44억원(국비 1천8백97억원, 지방비 6백 47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앙, 시도, 시군 등 지역별로 공동 방역사업단을 설치,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농장 소독, 농장 출입통제 등 지역 단위 공동 방역활동을 실시하며, 지역별 공동방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공동방역 활동을 평가하여 양축자금 등 정책자금 및 방역비 등을 우수 시도에 지원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싯가의 80%를 일률 지급해 오던 살처분 보상금 지급제도를 현실화시켜 전염병에 걸린 가축(죽은 가축을 포함)을 발견한 때에 그 소유자·관리자가 지체없이 신고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의사에게 진단·검안을 의뢰한 경우(조기 신고농가)에는 살처분시 가산액을 추가하여 싯가의 100%를 지급해 주기로 했다.

양돈의 주요질병인 돼지 콜레라는 2001년까지 박멸 3단계 계획(5년)으로 박멸하고 돼지 오제스키병은 2002년까지 3단계 박멸 계획(6년)으로 근절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8 경기·강원북부지역 집중호우로 가축 100만 마리 폐사

지난 7월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북부와 강원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이 지역의 양축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돼지가 죽거나 떠내려간 돈사는 폐허가 되고 닭이 폐사하는 등 수해농가가 속출했다.

중앙재해대책 본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폐사된 가축은 돼지 5,170마리, 소 160마리, 닭 969,000마리와 기타가축 45,000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수해농가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으로 가축의 입식비 보조와 함께 융자지원을 하였다.

## 9 올 대일 돼지고기 수출 급신장

### -10월말 현재 1억7천만 달러로 올해 2억불 넘을 듯

올 들어 돼지고기 수출이 급신장, 지난 6월말 1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올말까지 대일 수출규모가 2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말까지 국산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액은 총 1억7천1백만달러로 작년동기의 7천1백만달러에 비해 1백 4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물량으로는 총 3만1천8백40톤이 수출돼 작년 같은 기간의 1만1천4백30톤에 비해 1백 79%가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일본에 수출된 국산 돼지고기 가운데 냉동육 물량은 2만7천8백72톤으로 작년동기대비 2백 14%가 늘어났으며 냉동육 수출금액은 1억4천5백70만3천달러로 1백 68%가 증가했다.

반면 고가로 수출되는 냉장육의 경우, 대일 수출물량의 금액이 3천9백88톤, 2천4백82만4천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57%와 52%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따라 대일 수출 돼지고기중 냉장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물량의 12.5%, 수출금액의 14.6%로 작년동기의 22.3%와 23.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 10 냉장·냉동 돼지고기 유통기한 자율화

### -보건복지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시행

지난 7월부터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인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진공포장육과 냉동육의 유통기한이 전면 자율화됐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7월 1일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진공 포장냉장육과 냉동육, 소시지 냉동제품 등 식육제품 26개 품목을 비롯 식품 44개 품목에 대해 유통기한을 전면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법 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소, 돼지 닭 등 10종의 식육부산물에 대해 지방, 신장, 간장 등 부위별로 항생물질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포장육 냉장품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98년까지 자율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유통기한 자율화전까지의 돼지고기 진공포장 냉장육 유통기한은 45일이고 냉동돼지고기는 9개월이었으며, 소고기진공 포장냉장육은 90일, 냉동소고기는 12개월이었다.